



#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22년 6월 15일

제 46 호

• 발행인: 박찬숙 • 편집장: 이현우  
• 편집위원: 채영신 황인우 유영미  
유지현 오유경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9-1102 E-mail annaclub7@naver.com ☎ 010-9025-4663

## 정례모임, 제8회 황금메아리상 시상

수상자 KBS대구 송현주, 원주MBC 박지현 격려



지역에서 맹활약하는 후배들이 자랑스러워요

### 5월 26일 서울 퍼시픽호텔 연회장

아나운서클럽 정례모임과 황금메아리상 시상식은 감동의 축제였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정례모임이 제8회 황금메아리상 시상식을 겸해 5월 26일(목) 오후 6시 서울시 중구 남산동2가 퍼시픽호텔 연회장에서 황우겸, 전영우, 김동건, 차인태 고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채영신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2022년 2분기 정례모임은 박찬숙 회장 취임 이후 활동 동영상 상영, 황금메아리상 시상식, 감사 보고, 참석자들의 근황 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박찬숙 회장은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의 출구가 보이는 시점이다. 아나운서라는 같은 직업인으로서 운명적 만남에 함께하고 있다. 좋은 사람들과 재미 있는 일, 많이 즐기시라.”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황금메아리상 시상식에서는 이계진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채영, 이후재, 손석기, 원종배 부회장 등 심사위원을 대표해 김상준 부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이번엔 수도권이 아닌 지역 아나운서들을 격려하자고 방향을 정했다. 그리고 아나운서협회의 추천을 받아 6명의 후보자 중 남녀 구분 없이 경력과 공적을 중심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2인을 선정했다.”라고 심사 과정을 소개한 후 제8회 수상자로 지역에서 맹활약 중인 KBS 대구방송 송현주, 원주 MBC 박지현 아나운서를 호명했다.

송현주 아나운서는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음악처럼 스며드는 방송을 하고 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배님들처럼 후배들을 격려하고 사랑 많이 주는 선배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지현 아나운서는 어떤 시상식보다 긴장되고 떨린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9살 아들 나이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고 즐겁게 방송해왔다. 지역 사회에서도 아나운서들이 멋지게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집 기사 2, 3면에 계속

## 6월 17일 세종시에서 문화 탐방 재개

30여 명 회원, K-뷰티 산실 한국콜마 본사 방문 예정

2019년 10월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문화 행사가 재개된다.

한국아나운서클럽(회장 박찬숙)은 오는 6월 17일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제조업체가 설계·개발 생산한 제품을 주문업체 브랜드로 공급 판매하는 ODM 글로벌 기업으로 K-뷰티의 산실인 한국콜마(회장 윤동한)를 탐방한다.

연회비 납부자 중 선착순으로 신청한 30여 명이 대절 버스를 타고 오전 9시 여의도 출발, 세종시 전의면 본사에 도착해 회사와 제조 시설을 둘러본 후 점심을 먹고 상경하는 일정이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최근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 초계 변 씨의 삶을 통해 이순신의 자립, 자주, 충성의 가치관이 형성된 배경을 학술적으로 고찰한 『조선을 지켜낸 어머니 - 이순신을 성웅으로 키운 초계 변 씨의 삼천지교』를 펴낸 역사 연구가이기도 하다.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른바 ‘독서 경영’을 실천해온 윤동한 회장은 10여 년 전부터 이순신 장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서적 250여 권을 독파, 2017년 이순신 장군의 자자를 딴 ‘서울여해汝諧 재단’을 설립해 이순신 리더십을 가르치는 ‘이순신 학교’를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기업이 정신을 결합한 ‘작은 이순신’을 양성하고자 대구가 톨릭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석박사 과정의 이순신 학과를 신설해 직접 강의도 하고 있어, 유익한 견학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47호에 탐방기 게재 예정)



윤동한 회장  
최근 펴낸 저서

### 3분기 정례 모임

9월 1일(목) 오후 6시 서울 퍼시픽호텔 개최 예정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유명미 이현우 이후재 황인우 오유경 원종배 정도영 김상근 김성수 김규홍 박지현 하지는 전찬희 박민정 김채영 조건진 차기정 전옥수 이숙영 송현주 남편과 딸 채영신 김상준 문무일 조길자 윤영중 황우겸 박찬숙 전영우 정홍숙 박영웅 박지현 아들

특집 2분기 정례 모임

전영우 고문은 축사에서 하버드 글로벌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 연사로 초빙되어 강연한 경험을 전하고 “상을 많이 받아보았지만, ‘선배가 주는 상’은 타본 적이 없어 오늘 수상자들이 부럽다. 그동안 65권의 책을 펴냈다. ‘아나운서가 화법의 대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우리 아나운서들이 강연가로도 이름을 날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홍숙 운영위원은 축시 이해인 수녀의 ‘오월의 시’에 이어, 황우겸 고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쓴 ‘나의 지팡이’를 암송하며 눈물을 감추었다. 김규홍 책임운영위원은 “아나운서클럽과 JC 창립자로서 항상 우렁찬 목소리로 후배들을 격려해준 황우겸 고문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니 몹시 서운하다. 황 고문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라고 축원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백명지 대구KBS 아나운서부장은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KTX 타고 왔지만, 정말 오길 잘했다 싶다. 덕분에 반가운 인연의 선배님들을 뵈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 저에게도 이런 영예가 주어지길 바라며 열심히 방송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재 부회장은 “올 봄같이 감격스럽고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인 봄은 없었다.”라며 자작시 ‘첫 번째 무대’를 낭송했다.

박찬숙 회장은 폐회사에서 “햇빛에 빛나는 물결을 일컫는 순우리말 ‘윤슬’이 정말 예쁘다. 오늘 윤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잔잔히 흐를 것이다. 그리고 훗날 별처럼 모두의 가슴에 새겨질 것이다.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또 가장가리에서 가운데로, 우리는 윤슬처럼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모임과 황금메아리상 시상식은 수상자인 송현주 KBS대구 아나운서와 박지현 원주MBC 아나운서가 각각 남편과 딸, 어머니와 아들 등 가족과 함께 참석해 어느 때보다 훈훈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아나운서클럽은 지역에서 올라온 수상자들에게 퍼시픽호텔 가족 숙박권을 비롯해 부상으로 박찬숙 회장이 협찬한 윤석 팔찌, 황우겸 고문이 협찬한 동아제약 선물 세트를 제공했다.

“우리는 햇빛에 빛나는 물결 윤슬처럼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성화 회원



차인태 고문과 맹관영 회원



김동건, 황우겸 고문



전영우 고문과 백명지 KBS대구 아나운서부장



수상자 KBS대구 송현주 가족



박찬숙 회장과 수상자 원주MBC 박지현 가족



채영신 사무총장



김상준 부회장



김성수 회원 차기정 운영위원 운영중 회원



원종배 부회장 조건진 감사 송현주 이숙영 회원



전찬희 윤지영 회원 유영미 편집위원



전옥수 김채영 이성화 정영희 하지는 박민정



정홍숙 운영위원의 축시 낭송



맹관영 이후재 김상준 전우벽 정도영 박영웅 김동건 김상근 문무일

황금메아리상 수상 소감

제8회 황금메아리상 수상자

KBS대구 송현주 (1985년 공채 12기 입사)

- 1TV <9시 뉴스> <아침마당> 1FM <노래의 날개 위에> 진행
- 20년 이상 <노래의 날개 위에>를 진행하며 지역 음악인에게 연주 공간을 제공하고 청취자와 연결하는 소통의 주역

원주MBC 박지현 (2004년 입사)

- <뉴스데스크> 앵커, <정오의 희망곡> <별이 빛나는 밤에> <오후의 발견> <골든디스크> 등 제작·진행
- 특집 다큐 <이웃의 탄생> <마음으로 보는 세상> 등 기획·제작

40년 가까운 방송 생활의 이름다운 방점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선배님들이 주시는 상이라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이 상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수고해온 많은 지역 아나운서들을 다독여주시는 의미의 상이 아닐까 싶어 마음이 짙하기도 합니다.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경험이나 쌓자며 도전했던 첫 아나운서 시험에 덜컥 합격해 버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여배우의 수상 소감처럼 “이 상은 나에게 입혀주는 사이즈 큰 옷이다. 이 옷에 맞도록 성장하겠다.”라고 했던 의미 그대로인데요 아나운서의 삶도, 이 상도 여전히 사이즈 큰 옷처럼 너무 과분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나운서로 지낸 세월이 벌써 37년이 흘러간 가운데 FM 클래식 방송은 그 중 20년 넘게 함께 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의 풍부한 음악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문화 예술인의 연주와 활동을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청취자들을 연결함으로 클래식과 로컬리티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고 음악 감상에 도움이 되는 안내자 역할을 진정성 있게 감당하는 마음으로 방송에 임했습니다. 어찌 보면 클래식 음악이 좋아서 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눔이 좋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방송하다 보니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성실함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간 함께해주신 청취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제작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나운서 선후배 여러분, 대구총국 동료들과 아나운서 식구들, 방송과 더불어 제 삶의 원동력인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진정성 있는 방송으로 마음을 나누는 진행자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시작보다는 아름다운 끝내기를 선택하라고 했던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이 생각납니다. 아나운서 생활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아름다운 끝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아나운서의 노력 인정받아 기쁘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는데, 대선배님들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평소 반갑게 읽던 아나운서클럽회보에 올릴 소감문을 쓰고 있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2004년, 처음 원주MBC 아나운서에 합격하고서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기쁨에 한껏 들떴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2년만 근무가 보장된 지역의 계약직 아나운서였기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었고 방송 스케줄과 서울 방송사의 시험 일정이라도 겹쳐버리면 한동안 멍한 마음에 방송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2년이 다 지나기 전,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여자 정규직 아나운서로 고용 형태가 바뀌었을 때도 너무 기뻐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아쉬움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고 싶던 방송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행복과 동시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점점 줄어가고, 서울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지역 방송사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19년 동안 원주 지역 <뉴스데스크>를 진행해 왔고, 세상 소식들을 전달하며 앵커로서 균형을 지키려 노력해왔습니다. 아나운서로서 방송 진행 업무 외에도 라디오 피디로서 프로그램 연출, 공개방송 콘서트 기획,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과 편집을 겸해 다양하게 활동하며 경험을 쌓았고 지역사회와 더 밀착해서 호흡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이런 균형 잡기야말로 제가 지역 방송사의 아나운서로서 풀어나려 노력해 온 숙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고심이 깊은 시기에 지역사 아나운서의 노력에 눈길을 돌려 ‘황금메아리상’을 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고민을 누군가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든든한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 어떻게 공헌할지, 후배 아나운서들에게 어떤 선배가 될지 고민하고 발전하라고 토닥여주신 것으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 알림 |

고맙습니다 (2022년 3월 11일 ~ 6월 10일, 입금순)

연회비

- 이성화 전우벽 성선경 이보길 남궁미
- 반주원 유지현 양진수 이종태 이지현
- 변영전 이형균 양창석 이정애 박현선
- 김성경 전찬희 박영웅 황인우 차인태
- 조일수 안종순 이현우 최운형 안주희
- 최윤락 이금희 김원태 오유경 정도영
- 전영우 맹관영 김성수 원종배 이숙영
- 박종홍

후원금

 성경환 20만 원	 이후재 30만 원	 차인태 90만 원	 백연숙 50만 원	 박찬숙 100만 원	 이금희 40만 원
 오유경 100만 원	 정흥숙 100만 원	 성선경 50만 원	 박영웅 10만 원	 전찬희 10만 원	 황인우 20만 원

광고 유치 박찬숙 회장 한국콜마 300만 원

축하합니다

- 이정민(cpbc) 6월 11일 아나운서 훈인
- 박지혜(전북FEBC) 6월 11일 훈인

조의를 표합니다

- 유진영(OBS) 4월 22일 조모상
- 이금희(전 KBS) 4월 20일 부친상
- 최선규(전 SBS) 4월 16일 부친상
- 차인태(전 MBC) 4월 1일 모친상

수고하셨습니다

- 이정민 5월 2일 KBS 퇴사



### 회 | 원 | 동 | 정

#### 한터친선협회 제2대 박찬숙 회장 터키 경제사절단 환영 만찬 참석



한국터키친선협회 제2대 회장을 지낸 박찬숙 회장(사진 하단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임재현 관세청장 초청으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방한 訪韓한 터키 경제 사절단 환영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터키 르자 투나 투라가이 무역부 차관은 한국과 터키의 민간 교류에 앞장서온 한터친선협회에 감사를 표하고 회원들을 터키에 초대했다.

#### MBC 출신 아나운서클럽 회원들 사우회 단합대회서 우의 과시



뒷줄 왼쪽부터 고창근 남궁미 안중순 조일수 김선희 이현우 권혁화 안주희 박민정 정영희 김채영 차인태 정연호 방남순

MBC 출신 차인태 고문, 초록희 정영희 회장, 송재익, 윤병건 회원 등 18명이 5월 31일 MBC 양주문화동산에서 열린 사우회 창립 32주년 기념 단합대회에 참석했다.

회원들은 오랜만에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아나운서들의 우의를 과시했다.

#### 방남순(전 MBC) 서울대 제 29대 총동창회 부회장 임명



서울대학교 제 29대 총동창회 정기총회(3월 28일(월)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방남순회원(가정대70-74)은 생활과학대 동창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 김주혜(전 KBS) 서예초대작가 인증서 수여



한국서화협회는 지난 3월 22일 ~25일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 상설전시장에서 개최한 국제현대미술대전의 서예초대작가로 김회원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김주혜회원은 현재 KBS 목격회 회장도 활동 중이다.

#### 이보길(전 KBS) KBS 한민족방송 토요일초대석 출연



3월 23일, 이소연(전 KBS) 회원이 진행하는 KBS 한민족방송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일초대석에 출연했다.

#### 이계진(전 KBS) 수석부회장 KBS 1TV <자연의 철학자들> 출연



5월 20일 KBS 1TV 휴먼다큐 <자연의 철학자들> '이계진의 낚다끼반喫茶喫飯' 편에 출연해,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는 소박한 촌부村夫의 모습으로 감동을 주었다.

이계진 수석부회장은 1976년 KBS 공채 1기 입사, 1990년 SBS 개국요원으로 이직, 1995년부터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중 법정스님이 일러준 '무소유'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모와 병약한 아내를 위해 1996년 경기도 화전민촌으로 거처를 옮기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

#### 이규향(전 KBS) 법보신문에 반가사유상 관련 특별 기고



5월 31일자 법보신문에 "반가사유상이 가부좌 풀고 엄지발가락 들어올린 진짜 이유"이란 특별 기고가 실렸다.

저자는 "국보 83호 금동 반가사유상의 엄지발가락이 발등 쪽으로 젖혀짐은, 나의 깨달음의 궁극은 바로 중도다! 라는 법열法悅의 순간 나올 법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중략) 중도中道の 시간은 보통의 시간이며,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지 못할 뿐 행복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분석했다.

1961년 KBS에 입사해 35년간 근무한 이규향회원은 30년간 불교 경전과 수행에 몰두해, 『0의 행복 - 붓다는 인생을 발견한 콜럼버스』(2010) 『부처님의 밥맛 - 이규향의 0의 행복론』(2018) 등을 발간했다.

#### 위진록(전 KBS) 월간조선 6월호 서면 인터뷰



월간조선 6월호 김태원의 인간탐험' 편에 KBS 원로 아나운서 위진록 "6.25! 임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면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김태원 기자가 미국 LA 거주 독자로부터 사부師父의 자서전이라며 위진록 회원의 『고향이 어디십니까?』(2013년 모노폴리)를 전해받은 것을 계기로 저자에게 서면 인터뷰를 요청해, 작성한 기사이다.

1928년생 최고령 아나운서 위진록 회원은 기사에서 "50년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40분간 5000보를 걷는다. 만 94세치고는 주위 사람들이 놀랄 만큼 건강한 편이다."라고 근황을 소개했다. 위진록 회원은 평양사범학교를 중퇴하고 1947년 서울중앙방송국 KBS 아나운서로 입사, 1950년부터 1972년까지 일본 도쿄의 유엔군사령부방송(VUNC) 출장 파견 근무 후 1973년 미국으로 이민, LA에서 거주하며 재미방송인협회 고문, 거주예술인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 채영신(전 KBS) 사무총장 6월 27일 임금수 가곡의 밤 사회



제10회 '임금수 가곡의 대향연'의 사회를 맡는다. 음악회는 오는 6월 27일(월) 오후 7시 30분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강 건너 봄이 오듯'이란 부제로 열린다.

#### 성경환(전 MBC) 5월 10일 KTV 원장 사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MBC 아나운서국장을 지낸 성경환 회원은 2012년 TBS·교통방송 대표이사를 거쳐 2018년 4월 KTV 원장으로 선임돼 내년 4월 퇴임 예정이었다.

#### 오유경(전 KBS) 한국예술가곡보존회 음악회 사회



6월 10일(금) 7:30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호국보훈 조국의 산하 한국예술가곡보존회 음악회 사회를 보았다.

오회원은 퇴직후 NATV<오유경의 인생책방>, 유튜브 <오유경TV, 넓어지는 원>으로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 황수경 강수정 최현정 김주희 김지원 김수민 프리랜서 아나운서들 MBN <아나프리해> 출연



사진 왼쪽부터 김수민 김주희 황수경 강수정 김지원 최현정

지상파 3사 출신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아! 나 프리해>가 5월 20일(금) 밤 11시 MBN에서 첫방송되었다.

김성주 진행, 황수경 강수정 최현정 김주희 김지원 김수민 아나운서가 출연한다.

#### 김원태(전 KBS) 『아빠의 보물 이야기』 발간



가족의 편지와 사진, 그동안 쓴 기고문을 모아 『아빠의 보물 이야기』(전남대학교 출판부)라는 책을 펴냈다.

김원태 회원은 1970년부터 1975년까지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 수필

## 6.25 동란의 추억

글 / 전미리(전 MBC, 미국 뉴저지 섬머셋 거주)

6.25 동란을 맞이하면서 전쟁 속에서 겪은 자기를 회상하는 화제가 다양하다. 끔찍한 현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몸을 떨며 마음 아파한다. 그러나 나에게 떠오르는 몇 가지는 아련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6.25 전 우리는 해금강 바다 근처 큰집에서 부유한 생활을 했다. 해당화 꽃향기를 맡으며 조개를 잡고 모래성을 쌓고 갈매기와 함께 뛰어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모래사장을 떠나며 나에게 소리쳤다. “어서 집에 가거라!” 순간 나의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미끄러지듯 구선봉(낙타봉)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피난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앞바다에 큰 군함이 정박했고 남한군 한 소대가 우리 집에 머물렀다. 나는 모래사장에 굴러 나오는 노란 껍질을 보았다. 그것을 집어 들고 냄새를 맡아 보기도 했다. 향기롭고 달콤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군인 아저씨가 말했다. “그것은 코쟁이(코 큰 사람들)들이 먹는 거야.” 나는 그 코쟁이들 사는 나라(미국)에 가서 이 향긋한 오렌지 열매를 실컷 먹고 싶어 멀리 수평선을 한없이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일곱 살이었다.

그 후 우리는 집을 떠나 이곳저곳 숨어다니며 살았다. 북진했던 국군이 후퇴하고 있다고 하고 인민군과 중공군이 마을을 지나가곤 했다.

길이 얼어붙고 눈이 쏟아지는 겨울밤, 우리는 남쪽을 향해 쭉고개를 넘고 있었다. 너무도 추워서 나는 걸음을 잘 걸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인민군에게 끌려갈까 두려워 초를 닦아서 걸었다. 얼어 죽을 것 같은 밤길에서 아버지는 속도가 느린 가족들을 하수여리 친척집에 맡기며 ‘3일 만에 데리러 온다’ 약속하고 혼자 떠나셨다.

어머니는 양미리 한 마리를 그 집 처마 끝에 걸어 놓고 아버지 오실 날을 기다렸다. 3일 이 지나 한 달이 되어도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다. 어머니는 우리 일곱 형제를 이끌고 고향 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은 골짜기 움집(반 지하굴)에서 살게 되었다.

초봄 우리가 남쪽을 향해 쭉 고개를 넘었을 때 그곳에는 국군 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북진할 때 우리 집에 머물렀던 부대였다. 그들은 우리를 반겨주며 군 트럭에 태워 양양까지 실어다 주었다. 트럭이 먼지를 날리며 달리는데, 길가 나무 아래 서 있던 이웃집 아들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그 집 아버지 여기 계세요!” 길가 집 오막살이에서 아버지가 나오셨다. 우리 모두는 기쁨과 감동으로 소리 내어 울었다.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헤어진 지 몇 개월 만에 만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뉴저지 땅에 묻혀 있다. 무덤 양쪽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의 무덤이 있고 성조기가 꽂혀 있다. 우연의 일이다. ‘미국 군인에게 그토록 두 손 모아 감사하다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군은 하늘나라에서도 지켜 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감상에 젖는다.

6.25를 맞아 생전에 남북통일의 날을 맞이하고 싶어 기도한다. 이북 사람들, 내 고향(강원도 고성군 초구리 비무장지대) 사람들 모두 끌어안고 한바탕 춤추고 싶다. 오늘의 한국 발전과 민주주의를 심어준 미국에 감사한다.



힘내라, 한국어! 16

## 세상에 완벽한 언어규범이란 없다 표기와 발음의 일치를 위한 사이시옷은 지나친 경우가 많다



김상준 (전 KBS) 언문학 박사

한글맞춤법은 발음 때문에 어색한 표기가 많다. 신문 방송에는 수시로 ‘휘발웃값, 자동찾값, 등곶길, 하곶길, 갈치국, 막넛동생’ 등의 표기가 오르내린다. 합성어 중에서 1+1 형태로 ‘빛물, 샷길, 켓돈’ 정도의 사이시옷은 괜찮다. 그러나 ‘휘발웃, 자동찾, 등곶, 하곶, 갈치’ 처럼 사이시옷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내과·외과·벼과’도 사이시옷을 넣을 것이 아니라 음운의 강화인 경음화, 즉 된소리되기로 처리하면 된다. 대가[대:까]나 초점[초:쩨]처럼 ‘내과·외과·벼과’로 표기하고, [내:파·외:파·벼파]로 발음해야 한다. 다행히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길 이름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살곶이길, 개나리길, 경찰서길, ○○여고길’ 등은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길은 경음으로 소리 난다.

영어의 경우는 표기와 발음을 달리할 때 대부분 발음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말하자면 문자언어가 발음을 쫓아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면서 발음법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약했던 극작가이며 비평가인 버나드 쇼(Bernard G. Shaw, 1856~1950)는 영어는 발음법을 배우지 않으면 한 문장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비과학적인 말이라고 했다. 그는 영어의 ‘ghoti’로 쓰고 ‘fish’로 읽어오

된다는 역설적인 말을 할 정도였다. 왜냐하면 ‘cough’에서 ‘gh’는 [f]로 소리가 나고, women에서 ‘o’는 [i]로, nation에서 ‘ti’는 [sh]로 나기 때문에, 원래의 표기에서 변한 발음을 모으면 ‘ghoti’를 [fish]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 휘발웃값 자동찾값 등곶길 ? 하곶길 갈치국 막넛동생

영어 발음 교육을 수없이 강조한 버나드 쇼는 희곡 피그말리온(Pygmalion)으로 유명하다. 피그말리온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Audrey Hepburn이 출연한 ‘My Fair Lady’는 아나운서들이 꼭 봐야 할 영화로 권하고 싶다. 이 영화는 오드리 헵번 역의 엘리자가 품위 있는 언어교육과 예절 교육을 통해 사교계의 여왕이 되는 과정을 그렸다.

발성법과 발음법이 나오는 ‘The King’s Speech’도 아나운서들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이다. Colin Firth가 주연인 이 영화는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이 말더듬증을 극복하기 위해 언어 치료사로부터 교육을 받아 성공하는

실화를 영화화한 것이다. 조지 6세 국왕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언어 치료사와 함께 BBC 스튜디오에 들어가 독일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성공적으로 마친다. 이후 처칠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는 엘리자베스 현 영국 여왕의 부친이다. 그는 또 형 에드워드 8세가 영국법으로 금지된 미망 인과의 결혼으로 왕관을 버리면서 왕좌를 물려받은 행운아이기도 하다.

영어는 써놓은 대로 문자식 발음(spelling pronunciation)을 하면 안 되는 말이 특히 많다. 예를 들면 ‘bomb, calm, hour, knife, psycho, salmon’ 등이다. 이밖에 지명인 Worcester는 워세스터가 아닌 우스터이며, 로마의 Caesar는 영어권에서 시저로 발음한다. 영어는 또 소리가 나지 않는 글자가 많아서 그것을 덜어내면 사전의 부피가 3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발음법의 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한국어 문자 언어의 규범인 한글맞춤법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자리를 지켜야 하고, 필요하면 발음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사이시옷을 넣는 등 한글의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 Zoom-in 오승훈(MBC) 아나운서 최초 제11회 변호사 시험 합격



## 신언서판身言書判 믿음 주는 아나운서 되겠다!

현역 아나운서가 변호사가 되다니!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다. 아나운서는 언론인으로서 방송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야 한다는 의식과 '한 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다' 라는 자긍심이 강한 전문 직종이다. 그런데 과연 변호사 활동도 겸직할 수 있을까 궁금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담당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회사원의 신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동료들에게 믿음을 주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자랑스러운 후배를 대하니 선배로서 기쁘지 않을 수 없다.

글 편집장 이현우 (전 MBC)

## 먼저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아나운서클럽 회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MBC에 근무하고 있는 12년차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제가 아나운서이기에 저의 합격이 작게나마 주목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아나운서로서 방송 활동으로 주목받기보다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주목받게 되어 겸연쩍기도 합니다.

그래도 MBC 사내 휴직과 로스쿨의 휴·복학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법학 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기까지 3년 휴직의 결과물을 얻었다는 것이 뿌듯하고, 응원해준 선배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변호사라는 수식어가 어떻게 작용할까?

솔직히 변호사 자격을 가진 아나운서라는 것이 방송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저 관련 지식이 필요한 사회적 이슈를 대하는 배경 지식이나 가치관 정도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보다 저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생겼다면, 한 분야의 지식과 철학을 익힘으로써 조금 깊어질 제 사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도 깊이가 생길 것이고 그 고민의 결과대로 행동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단단해지리라 믿습니다. 내면의 성장을 이뤘으면 좋겠고, 그 성장이 방송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

타부서로 전보되어 아나운서 일을 못 하고 있을 때 공부를 결심, 휴직으로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선배들의 부름을 받아 복직해 2년간 근무하다 아무래도 공부를 마무리 지어야겠다 싶어 다시 휴직을 신청했을 때, 제 생각을 이해해주며 적극 지원해주신 선배님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후 2학년으로 복학해 공부를 다시 시작 하느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응원하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한 착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다섯 살배기 딸아이, 양가 부모님 등 도움을 준 가족들이 있어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매일 똑같은 삶을 살 듯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 본인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능력'을 사전에서 찾으니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 또는 '지성, 감성, 기억 따위의, 정신 현상의 여러 형태', '정신적인 기능이나 신체적 기능의 가능성' 이라고 풀이되어 있네요.

저는 수많은 일을 감당하기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고 정신적 기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리 자신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진정 원하는 일에 도전했던 아나운서 시험에서는 운도 크게 따랐고, 상황에 따라 도전했던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한 것에는 저의 노력 외에 가족들의 희생과 동료들의 지원, 응원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지 솔직히 답해달라.

당연히 아나운서입니다. 공학 박사 과정을 중도에 그만두고 아나운서 입사를 준비했고, 법을 공부한 것도 '더 좋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열망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제 답은 명확합니다. 앞으로도 아나운서로 살아갈 것이며, 아나운서가 아닌 변호사로서 외부 활동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한다면 그것은 먼 미래에 아나운서실에서 퇴직한 다음의 일일 것입니다.

## 프리랜서로 변호사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MBC 아나운서'라는 일곱 글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그저 '애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MBC 아나운서'라는 일곱 글자를 가진 채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 유혹이 MBC 아나운서가 아닌 무언가라면 곧바로 뿌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취미나 특기, 더 펼치고 싶은 인생의 꿈은?

제 취미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여행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인생을 여행하듯 살아내고 싶습니다. 저는 마음 깊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업무적으로는 동료와 시청자에게 믿음을 주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뉴스 외에 전담 프로그램은 없지만, 아나운서를 꿈꾸던 시절부터 줄곧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해왔는데,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외국어 새말 대체어'를 제공하고 있다. 국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새말모임을 통해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은 대체어를 소개한다.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의미
에이지리스 (ageless)	나이 무관	어떠한 선택에서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것
안테나 숍 (antenna shop)	탐색 매장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 소비자의 선호나 반응을 파악하여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점포
컬처 핏 (culture fit)	조직 문화 적합성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채용 대상자와의 적합성 채용 시 지원자를 조직 구성원과의 교감, 소통, 조직과의 융화 등을 고려해 평가함
디제라티 (digerati - digital+literati)	디지털 지식인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지식 계층



# 방 | 송 | 가 | 소 | 식

## KBS ..... '한국어포스터' 를 이제는 디지털로!



한국어연구부에서 1988년부터 제작한 '한국어포스터'가 디지털로 바뀌었다. 흥미로운 퀴즈를 도입해 디지털로 만들어져 전국의 학교, KT와 SKT, 국립한글박물관, 81개 아파트단지에 배포된다.

### 이선영, 아나운서 직업 에세이 출간



상도북스의 『피땀눈물』 제3권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매일 선다는 일』을 펴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러브 인 아시아> <2TV 생생정보> 등을 진행하며 이십 년 넘게 매일같이 매번 다르게 시청자의 시선으로 감동을 전하는 이선영 아나운서(공채 31기)의 직업 에세이이다.

## MBC ..... 김나진, 취업 지침서 출간



간판 스포츠캐스터 김나진 아나운서가 지난해 『포기할까 망설이는 너에게』에 이어 두 번째 책, 『당신만 모르는 면접관의 채점표』를 출간했다. 채용 담당자로 근무했던 경험과 MBC에서 수천 명의 지원자를 심사해온 경험을 담은 취업 지침서이다.

## SBS ..... 아나운서팀 월드비전에 기부



아나운서팀이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에 후원금을 기탁했다.

SBS 아나운서들은 아나운서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아나운:서점'의 수익금 일부를 김성태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 CBS ..... 김덕기, FLO와 뉴스 콜라보



MZ세대의 뉴스 감성을 사로잡기 위해 FLO와 CBS 김덕기 아나운서가 손을 잡았다. 김 아나운서가 뉴스 '일타강사'가 되어 뉴스의 핵심을 짚어 주며 FLO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뉴스를 즐겨 듣지 않는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 '뉴스1타'는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디오 플랫폼 FLO에서 만날 수 있다.

## TBS ..... 라디오 새 단장, 아나운서들 대활약



봄 개편에서 아나운서들이 중요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낮 12시 중장년층을 겨냥한 시사 풍자 예능 프로그램 <9595쇼>에 강지연 아나운서가 개그맨 박성호와 짝이 되었다. 평일 오전 10시에는 교통 예능 <라쿠카라차 김기욱, 김혜지입니다>가 방송된다. 오후 4시 신설 프로그램 <네 시 상륙작전, 최 장군입니다>엔 최지은 아나운서가 '최 장군'이 되어 나른한 오후에 웃음을 선사한다.

## OBS ..... 경기 지역 라디오 방송사업자로 선정돼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7일, 경기방송의 폐업 이후 2년여 만에 경기 지역 라디오 방송 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했다. 경기방송 직원 14명을 고용 승계하며, 개국 준비 인력으로 6월에 3명, 9월에 1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주파수는 기존의 99.9MHz를 그대로 사용하며, 공식 명칭은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김학균 OBS 대표이사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 라디오 7곳과 협업,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아픔을 대변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febc ..... 극동방송 전직원 수련회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극동방송 전국 지사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수련회를 개최했다. 명사들의 강연에 이어 둘째 날 저녁 febc 뮤직 페스티벌(사진)을 펼쳐 직원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며 친목을 다졌다.

## cpbc ..... 기후 위기 캠페인 특집 방송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6월 18일에 반포한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기반으로 매달 18일을 전후해 라디오에서 기후 위기 캠페인 '함께 지켜요, 공동의 집'을 전개하고 있다.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는 지구와 기후 변화를 다룬 책을 선정해 낭독하고 저자와 관련 책 관련 출연자가 나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김슬애, 이정민 아나운서가 격월로 진행한다.

## BBS ..... 올해 연등회 BTN과 첫 공동 생중계



BBS불교방송과 BTN불교TV가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의 하이 라이트인 연등행렬을 함께 중계했다. 양사의 공동 생방송은 개국 이래 처음으로, 양사의 TV와 라디오 채널, 모바일·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4시 10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방송되며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의미를 한층더 깊게 했다.

## jtbc ..... 송민교, 6년째 백상예술대상 현장 진행



5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8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송민교 아나운서가 6년째 함께하며 노련한 방송을 선보였다. 팬들이 후보들을 미리 만날 수 있는 레드카펫 현장과 백스테이지 현장에서 때로는 재미있고, 때로는 감동적인 인터뷰를 끌어냈다.

사무실은 내 방, 아이디어는 완판급!

한국콜마 화장품 플랫폼서비스로

오늘부터 화장품 CEO!

The image shows a woman in a white shirt interacting with a large digital display. The display is titled "HK Kolmar Platform" and features several data dashboards:

- WORK PROGRESS STATUS:** A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progress for MOBILE (27%), NAVIGATION (32%), BIG DATA (18%), and HOME (25%).
- SMART COSMETIC MART:** A circular chart showing project performance forecast for next year with segments for MARKETING (326,434,680), COSMETIC (326,434,980), HOME (438,937,780), and BIG DATA (273,636,875).
- OUTLOOK FOR NEXT YEAR:** A line graph showing trends over time (03, 06, 09, 12, 15, 18) with a total value of 293,313,842.

The woman is holding a brown glass perfume bottle, and the overall scene is set against a light blue background.